

Robert A. Peterson 박사, 누가-사도행전 신학, 세션 8, 누가복음 교회, 신약 의 하나님의 백성, 1부

누가복음-사도행전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세션 8, 로버트 A. 피터슨(Robert A. Peterson), 누가복음의 교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1부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교회.

누가는 이 책을 헌정받은 데오빌로에게 우리 가운데 성취된 일을 확신하고 인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문으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1, 누가복음 1:1.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잉태와 탄생으로 시작하여 말씀과 행위의 사역을 거쳐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정점에 이릅니다.

즉, 누가는 교회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그의 복음을 마무리하며, 성경이 그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라고 추종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누가복음 24:47.

누가는 사도행전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일어난 일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이는 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로 연결하고 사도행전이 기록한 첫 번째 사건인 예수의 승천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누가는 사도행전의 복음서를 서로 연결된 두 권의 책으로 봅니다. 복음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교회를 찾으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고, 사도행전은 이방인을 포함하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사도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8.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이방인의 기초가 되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의 일곱 에피소드를 조사할 것입니다.

2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결례의 날이 이르매 아기 예수를 주께 드리려고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처음 태를 낳은 남자는 여호와께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고 여호와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새끼 두 마리로 제사를 드릴 것이요 비둘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가 그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여 이제는 허락하시나이다 주의 종은 주의 말씀대로 평안히 떠나가나이다

내 눈이 주께서 모든 민족 앞에서 예비하신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이방인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로소이다. 그 부모와 그 부모가 그에 대하여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과 대적하는 표징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영혼을 꿰찔러 많은 마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했지만 분명히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팔일 만에 할례를 받은 후(창 17:12)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천사들이 지시한 대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1, 누가복음 1:31. 율법은 아들을 낳은 여인이 할례를 받기 전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규정했습니다(레위기 12:1~5).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케 하기 위해 바친 제물은 그들이 가난했음을 나타냅니다(레위기 6~13절). 아직 12개.

그런 다음 누가는 두 명의 증인을 제시합니다. 하워드 마샬은 두 번째 증인인 안나를 언급하며 신국제그리스어 성경 주석 시리즈에서 마샬의 누가복음 주석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의 중요성, 신명기 19:15.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첫 번째 증인 시므온에게 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로 언급한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던 성령이 머무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그에게 받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인도를 받았습니다(눅 2:22). 또한 성령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시므온을 성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께서 세상에 예비하신 구원을 보았사오니 모든 민족 앞에 계시니 이방인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오니, 누가복음 2:30-32.

하나님께서서는 시므온이 죽기 전에 시므온에게 메시아를 보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의 말은 강력하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작은 아기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성인이 되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원수들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실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여기 누가복음 초반부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계시의 빛이 되신다고 합니다.

31절과 32절. 누가는 31절의 모든 족속이 심지어 32절의 이방인을 뜻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 눈이 주께서 모든 민족 앞에서 예비하신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에게는 영광이로다 이스라엘.

여기에는 물론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 국가도 포함됩니다. 이 점은 1세기에 이방인들이 겪었던 곤경을 생각해 볼 때에만 적절하게 평가됩니다. Thielman은 Frank Thielman을 묘사하면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에베소서 주석, 157페이지, “Thielman, 복음이 도래하기 전 이방인들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바울의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의 묘사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의 보고(寶庫)였습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정의상 이 백성과 이 소망에서 제외되었으며, 따라서 특히 절망적인 절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통해 절망과 절망의 상황을 역전시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미 유아기 이야기에서 성서 사이의 이 중대한 전환에 대한 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은 누가복음 주석의 첫 번째 책인 "이 문맥에서 이방인들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로 묘사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의 나머지 부분과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들도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비추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장의 시므온의 말에서 이미 독자들은 누가복음의 보편화 경향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포함한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는 시므온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33절에서 그는 두 사람 모두를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혼합된 메시지를 보냅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하게 하고 반대되는 표징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으니 이는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러나 그는 거기까지 포함하며, 칼은 당신 자신의 영혼도 꿰뚫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시작 부분에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예고를 발견합니다. 시므온은 예수의 삶과 사역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저주와 축복을 가져오실 것이며, 그를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34절, 게다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결과로 칼이 마리아의 영혼을 꿰뚫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목격하면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요한복음 19:23).

하워드 마샬(Howard Marshall)은 그의 누가복음 역사가이자 신학자에서 “구원의 개념이 누가복음 신학의 열쇠를 제공한다는 것이 우리의 논제입니다”(92페이지)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초라는 점에 동의하고 덧붙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의 시작 부분에서 아기 예수가 구원으로 선포됩니다.

시므온의 예언에서 우리는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미치리라는 것을 배웁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경험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5:1 한번은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무리가 몰려오는데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으나 어부들은 그들에게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오르시면서 그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어 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배 위에 앉아서 백성을 가르치셨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선생님께 대답하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사오나 선생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우매 잠기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더라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들이 고기 잡는 것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남자를 낚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가복음 5:1.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 한 번씩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6절 과 마가복음 7장 13절에 각각 한 번씩만 등장합니다. 그러나 거의 20번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말씀은 누가복음-사도행전의 복음 선포의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임스 에드워즈, 누가복음, 152쪽. 예수께서는 호숫가에 있는 두 척의 빈 배를 발견하셨습니다.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아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에게 땅을 내달라고 부탁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배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기를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배를 깊은 물로 가져가서 트램멜 곧 트램멜 그물을 내리라 명하시니라. 밤낚시에 사용되는 3겹으로 구성된 튼튼한 그물입니다. 전문 어부인 사이먼은 그들의 밤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에 대해 가볍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초보 제자였기 때문에 본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들은 아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배에 가득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6절과 7절.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가 다른 제자들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페리코프를 단지 예수님과 베드로에 관한 것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늘 그렇듯이 그는 리더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실 무리의 일원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응답하여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오 주.

베드로의 반응에서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 그는 예수님과 자신 사이의 큰 차이를 인식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둘째, 그는 자신의 죄성과 무가치함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신성한 행위에 직면하여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셋째, 베드로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단어의 사용은 호격의 관례적인 sir와 신성에 대한 인정 사이에 해당됩니다.

일부 해석자들은 여기서 이 용어에 대한 완전한 기독교적 이해를 보지만, 에드워드(누가복음)에 따르면 우리는 동의하지 않으며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을 인정한다는 그린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Green, 누가복음, 233페이지. 그런 다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가르치는 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10절.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하나님을 위해 남자와 여자를 잡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이 초기 단계에서 예수님은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사도적 설교를 통해서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11절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반응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들은 이전에 누가복음 4장, 38장, 39장에서 예수님과 접촉한 적이 있었지만, 그들의 생계와 엄청난 양의

고기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바르는 누가복음 5장, 4장부터 10장까지의 메시지를 현명하게 요약합니다.

다시, 누가복음에 대한 복의 첫 번째 책, 누가복음 첫 번째 권 주석, 460-462,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소명이 무엇인지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약속은 피터가 사람들을 잡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잡기, 모으기, 구출하기의 아이디어가 포인트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의 모든 증인들에게는 제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해안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배를 뒤에 남겨둔다. 여기의 주어는 복수형이므로 베드로 외에 다른 남자들도 떠난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더 이상 낚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27, 그리고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사도행전의 큰 증인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11절에 따르면, 죄인들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거나 베드로의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참여하려면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물론, 베드로의 믿음은 초기에 있었고 자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더 중요하게는 그분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였습니다.

참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는 그들의 삶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합니다. 둘째, 주요 메시지는 교회를 위한 전도의 필요성이다.

하나님은 죄 많고 이기적인 인간을 그분의 왕국을 위해 남자와 여자를 낚는 어부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신약 백성들은 죄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의 세 번째에 나오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죄인들을 용서받았습니다.

누가복음 7:36~50. 누가복음 7:36.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은 예수께 함께 식사하자고 청하였고, 그분은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 동네 죄인 된 여자 하나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발을 적시더라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리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고리대금업자에게 채무자가 두 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들이 갚을 수 없게 되자, 그는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그들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할까요? 시몬은 더 많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옳게 판단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더니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느니라.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여자의 죄가 많고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여자는 많이 사랑하였느니라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그러자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용서하는가 하더라. 그리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멸시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처럼 인용문이 없고 인용문이 없는 존경받는 사람들과도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공개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누가복음 7:36. 사적인 식사와 달리 공개적인 식사는 문이 열려 있었고, 사람들은 그냥 들어서 토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공공 식사에서 사람들은 소파에 옆으로 기대어 다리를 테이블 반대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여인은 값진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예수의 발 뒤에 서서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37,38절)

바리새인은 예수께서 그런 죄 많은 여자가 자기에게 손을 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초기 에피소드에서 바리새인들은 “법률을 준수하며 죄인을 멀리하는 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린, 누가복음, 308페이지). 그는 자신의 생각을 속으로만 간직했지만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분명히 선지자는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았을 것입니다(39절).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우리는 마살이 설명하는 것처럼 바리새인이 두 가지 면에서 모두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의 주인의 행동보다 그녀의 행동이 그에게 더 환영받는다 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살, 누가 주석, 309, 310페이지. 예수께서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이제 밝혀진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이름은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시몬은 그에게 계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채권자와 두 명의 빚진 자에 대한 짧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사람은 거의 2년치 품삯인 500데나리온을 졌고, 둘째 사람은 두 달치 품삯인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채무자는 어느 쪽도 그의 빚을 갚을 수 없었으며 채권자는 은혜롭게 그 두 사람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눅 7:41, 42).

그러자 예수님은 시몬에게 은혜로운 채권자를 더 사랑할 빚진 자가 누구인지 물으셨습니다. 시몬은 43절에서 자기가 더 많이 용서한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대답을 칭찬하시고 그 여자에게 주의를 돌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시몬이 사회적 예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을 씻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올리브 기름도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한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그분의 발에 입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그분의 발에 부었습니다(44, 45절). 예수님은 비유의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4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는 그가 많이 사랑하였음이라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녀는 비유에 나오는 빛진 자가 더 큰 빛을 탕감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적은 양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또한 적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 비유를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권유하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48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찰자들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과 비교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죄를 용서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49절).

그런 다음 예수님은 50절에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나며, 예수님의 여러 비유처럼 이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인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인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청중과 독자인 시몬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페리코프를 일견 읽으면 누군가는 그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헌신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그러한 결론은 실수가 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사랑과 감사의 상대적인 반응보다 빛을 탕감하는 일이 선행함을 보여 주며,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고 친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많이 사랑했습니다(47절). 따라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는 신약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여줍니다.

루터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으며 둘 다 죄인, 용서받지 못한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며, 예수님은 이야기 속의 죄 많은 여인을 포함하여 멸시받는 자들을 향한 마음을 갖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예수께서 매춘부가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신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시몬의 독선적인 태도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많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용서받은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9:23-27, 네 번째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9:23~27, 작은 것.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 다음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비유가 나오며 모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다음은 변형을 따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메시아 곧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고백한 후(눅 9:20), 예수께서 자신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후(21절과 22절), 그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그의 삶에 적용시켰다. 제자들의 일상.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자신을 따른다는 개념과 겹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전하십니다.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이 개념은 신약성경에서 이곳에만 나타납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 자기 - 소티리즘에 대한 모든 개념을 포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 대신, 그것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그분께만 최고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다음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인의 십자가 처형을 직접 본 경험을 통해 이것이 문자 그대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십자가를 처형장으로 들고 가는 것을 보고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죽을 예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순교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기꺼이 죽겠다는 의지가 포함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에 대해 죽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가 단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신과 자신의 욕망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위해 탁월하게 사는 삶으로 묘사합니다.

그린은 사람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것처럼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고난 중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린, 누가복음, 373쪽.

셋째,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모범을 따라 계속해서 그분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마살은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요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주인과 같은 방식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74장에 대한 마살의 주석. 이어서 예수님은 수수께끼처럼 들리는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신을 위해 살아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들은 그분을 향한 사랑과 봉사에 목숨을 바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참 생명, 현재와 영원히 영생을 얻습니다. 바흐는 이 개념이 행위로 표현되는 회개 및 믿음의 개념과 얼마나 유사한지 지적합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5절.

이 수사학적 질문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강화시켜 줍니다.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은 지금은 인생을 낭비하고 내세에서는 영원히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도를 종말론적인 용어로 설명하십니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리요?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그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구원이 부족함을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부끄러워하는 제자들은 그분이 장엄하고 승리로 돌아오실 때 그분에게 거절당할 위험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엄중한 경고를 격려적인 말씀으로 바꾸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27절.

이 단어들은 해석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비판적인 학자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곧 재림을 예언하셨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관련성은 누가복음의 바로 다음 단어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예수의 변형을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해석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지만, 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의 세션, 그리고 영광 중에 그의 재림을 바라보는 변형에서 그 성취가 예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바르는 예수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부활과 승영, 메시아로서의 즉위를 인용하여 성취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변형을 예수께서 장차 이 땅에서 자신의 권위를 완전히 나타내실 때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로 간주합니다(누가복음 21, 27장). 제안. 바르, 누가복음 주석 854 및 55권 중 1권.

누가복음 9장 23~27장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도에 대한 어려운 그림을 그립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이 아닌 그분을 위해 사는 헌신적인 제자로 묘사하십니다. 비록 죽음을 의미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죽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며 그 죽음으로 죄의 종노릇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자기 백성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땅에서 영원무궁토록 영생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제시하는 누가복음의 일부 구절에 대한 나의 어, 연구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탕자의 비유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인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매우 중요한 장에서 예수님의 증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이것은 여덟 번째 세션입니다. 로버트 A. 피터슨(Robert A. Peterson), 누가복음 교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1부입니다.